

데리다의 아카이브* 위탁과 죽음충동의 장소

Derrida's Archives: A Place of Consignment and Dearth Drive

윤은하(Youn, Eunha)**

1. 들어가며
2. 아르콘(Archon)적 권력과 기호의 위탁
3. 아카이브에 내재된 근원적 충동, 죽음충동
4. 아카이브 열병: 죽음충동과 아카이브, 그리고 위탁권력
5. 나가며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명지대학교 신입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eunhayoun@gmail.com).

■ 투고일: 2024년 06월 15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6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6월 26일.

■ 기록학연구 81, 133-157,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1.133>



〈초록〉

본 연구는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에서 드러난 아카이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리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근간으로, 아카이브에서 의미가 생성, 소멸되는 과정과 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가 단순히 과거의 수동적인 기록보존소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기억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장소임을 밝혔다. 본 고에서는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근간으로 아카이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충돌, 기억의 선택과 배제 과정을 데리다의 위탁 권력과 죽음충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주제어: 데리다, 『아카이브 열병』, 죽음충동, 아카이브, 위탁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rchives from the perspective of deconstruction through a discussion of Derrida's 『Archive Fever』. Derrida argues that the archive is not a space of fixed and absolute truth, but a place open to various interpretations. Archive records are composed of countless meanings constantly created by the people who produce the records and the people who read them. As a result, the archive is not simply a place to store past documents, but a place where meanings are produced, destroyed,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It must be understood as a complex place. Derrida's view of archives reveals a deconstructive perspective on archives that can be understood separately from the discourse of power and memory. Based on Freud's psychoanalysis, Derrida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meaning is created and destroyed in archives and the unconscious desires that act on it. Through this, we see that archives are not simply passive records of the past, but memories of the present and future. We must acknowledge that it is an active and

complex place that is constantly being reorganized.

Keywords: Jacque Derrida, Death drive, archive fever, archives

1. 들어가며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1997년 『아카이브 열병』(Archives Fever)을 출판하여 전통적 아카이브의 이미지와 절대적 가치를 해체했다. 그는 아카이브에 대한 열망은 일종의 열병이라고 말하며 아카이브 핵심에는 아카이브적 욕망과 죽음충동, 기억과 망각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 모순된 충동과 긴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에 따르면 아카이브에서 의미는 완료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반복, 소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끌어지기보다는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상충하면서 존재한다.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은 텍스트와 의미, 기억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아카이브를 위치시키고 그의 해체적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카이브의 탄생과 발전에 대한 역사적 탐구와 아카이브와 권력의 상관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있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미셸 푸코(Michelle Foucault)의 권력 담론에 근거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푸코는 미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무수한 권력 충위를 파헤치는 작업을 통해 아카이브가 기억기관으로서 지식과 담론의 형성에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다(푸코, 1969). 그럼에도 푸코의 관심은 아카이브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실제 아카이브 내부와 그 핵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데리다는 아카이브와 기록의 속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비동질성에 집중하여, 아카이브 내부의 내적 분열

과 통합, 억압과 표출,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 주목했다. 데리다는 직접적으로 아카이브 내부에서 존재하는 긴장과 충돌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철학적 탐색을 시도했다. 그는 아카이브를 권력 담론의 단일한 생산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아카이브 내부에서는 기호의 역동, 의미의 충돌, 양립 불가능한 욕구들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이러한 내적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리다는 절대적으로 단일한 의미 체계로 인식되었던 아카이브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인했다. 그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미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를 둘러싼 역사적 담론들은 아카이브를 모두 통일적이고 단일한 의미 생산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이는 구조주의적인 담론들이 아카이브 내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차이와 간극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데리다는 인간의 기억과 망각의 근저에 존재하는 아카이브적 욕구와 동시에 무의식적 파괴 충동에 주목했다. 특히, 데리다는 정신분석을 근저로 아카이브의 이해를 시도했는데, 이는 기억의 경계와 그 근저의 본질, 흔적에 접근하도록 했다. 즉, 이제껏의 분석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했다면, 데리다의 접근은 아카이브의 외적 준거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와 기록, 기호들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내적 준거로부터 시작한다. 그리하여, 양립할 수 없는 욕구 충돌의 장소로, 흔들리는 기호들의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장소로 아카이브의 본질을 규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푸코와 역사학자들이 사건과 시대적 정신에 따라 아카이브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데리다는 그것을 구조화한 내적 원리 자체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에 차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왜 아카이브에는 이러한 양립 불가능하고 모순적인 힘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이를 통해서 데리다가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끊임없는 의미의 재창조 공간으로 규정된 아카이브에 대한 데리다의 주장이 실제 기록관리와 기록학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고에서는 데리다가 그의 저서 『아카이브 열병』에서 탐색한 아카이브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아카이브 본질과 작동에 대한 데리다의 해체론적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리다가 언급한 아카이브의 외부의 위탁권력과 내부의 죽음충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원리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아카이브 열병’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2. 아르콘(Archon)적 권력과 기호의 위탁

데리다는 아카이브에 내재하는 분열적이고 복합적인 힘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아카이브의 언어적 기원에 관해 탐색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아르케(arkhe)’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어원으로부터 이미 아카이브 내부에는 도달할 수 없는 모순적 욕망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아르케는 ‘근원’과 ‘계명’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한다. 첫 번째 뜻은 역사적인 혹은 존재론적 원칙에 따라 세계가 시작되는 근원을 의미한다. 이는 우주의 시작이나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주로 쓰여졌다. 그들은 아르케를 단순히 시간적 시작만을 나타낼 때만이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의 기원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 즉, 아르케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리에 관한 철학적 사유를 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어원에는 세상의 근원을 탐구하는, 혹은 사물의 본질이 형성되는 장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아르케의 뜻은, 법적인 원칙, 권위와 사회질서가 행사되고 명령이 내려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여기에는 인위적이고 법적인 질서의 의미와 함께 권위와 지배, 지배력, 통치, 권력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Derrida, 2).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아르케를 통치의 원리나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때 아르

케는 단순히 철학적 또는 물리적 기원에 그치지 않고, 권력과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주광순, 2006).

“아카이브”라는 단어와 그 단어의 아카이브에서 시작하자. 아르케는 동시에 시작(근원)과 명령(권위)을 의미한다. 이 이름은 두 가지 원리를 하나로 조화시키는데, 하나는 자연이나 역사에 따른 원리, 즉 물리적, 역사적, 존재론적 원리이고, 또 하나는 법에 따른 원리, 즉 사람들이나 신들이 명령하는 곳, 권위와 사회 질서가 행사되는 곳, 명령이 내려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법칙적 원리이다(Derrida, 2).

이렇듯,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사물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와 사회적 질서라는 두 가지 함의로부터 유래한다. 즉 이는 아카이브가 존재론적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의 근원인 동시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권위와 명령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기억의 저장소라고 알려진 아카이브 본연의 의미 속에 자연적인 시작과 인위적 질서가 공존한다. 인간은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원의 기억을 탐구하지만 동시에 아카이브를 통한 기억에는 사회의 권위와 법적 질서가 행사되는 인위적인 명령이 함께 존재했음을 내포한다.

아르케와 함께 데리다는 아카이브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장소와 집, 거주지, 특히 상급 행정관들의 거주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아르케이온(Arkheion)의 단어를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권력을 소유한 시민들은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대표할 권리를 가졌고, 이러한 공적으로 인정받는 권위로 인해 공식 문서는 종종 그들의 집에 보관되었다. 집과 장소를 가리키는 아르케이온은 기록과 문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Derrida, 3)”고 말한다. 데리다는 아르케이온이 자연과 사회적 권위의 교차점이 되었고, 어느 시점에서인가 기록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세스, 수집, 식별, 분류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정치

적 권력자들, 즉 그리스의 아르콘(Archon)들은 법을 제정하거나 대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사회적 권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기록들은 아르케이온에 물리적으로 보관되었고 아르콘들은 그 관리를 위탁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곳을 지배하는 사람들, 아르콘들은 문서의 수호자들로 불리었다. 이러한 물리적 위탁은 자연스럽게 아카이브에 대한 지적통제와 결합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아카이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아카이브에서 단지 문서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관된 문서를 해석할 능력과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카이브를 통제하고 해석할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했다. 데리다는 이에 대해 그들이 무한히 많은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기호들에 고정된 의미와 절대적 해석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Derrida, 2). 아르콘들은 아카이브 기능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조직하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데리다는 여기서 ‘위탁(Delegation)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사물의 보관을 맡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기호를 모아서 맡기는 행위’로 해석한다. 그리고 위임받은 아르콘의 권력을 위탁권력이라고 규정한다.

위탁권력은 단순히 기록의 물질적, 혹은 물리적 보관을 하는 것에 그치고 않는다. 데리다 철학에서 기호는 단순히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

1) 데리다가 사용하는 ‘위탁(Consignment)’과 ‘위임(Delegation)’의 영어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위임은 과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즉,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delegation의 단어를 쓴다. 이에 반해 consignment는 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운송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리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상점에 위탁 판매하거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consignment를 사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데리다가 위탁권력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관리권과 보관권을 이전시키는 의미에서 사용된 위탁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라,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데리다가 아카이브의 내적 속성으로 기호들을 말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호들의 관리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인위적 권력, 즉 위탁권력을 등장시킨 것은, 앞서 언급한 아르케의 어원에 포함된 아카이브의 모순적 특질, 자연적 근원과 인위적 법칙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아카이브에 공존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아카이브는 인간이 모든 경험과 인식, 정체성과 역사의 시작점이 되지만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질서 속에 존재하는 근원이 아니다. 그것은 위탁이라는 행위를 통해 태생적으로 인위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질서를 포함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 열병』에서 아카이브 내적 속성이 기호를 모으고 관리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권력은 (아카이브 기록들의) 통합, 식별, 분류의 기능들을 모두 하는 동시에, 이를 우리가 위탁권력이라고 부르는 권력과 결합한다. 위탁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거주지를 할당하거나 무언가를 맡기기 위해 특정 장소나 특정한 요인에 맡기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기호들을 모아 위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전통적인 의미의 ‘consignatio’, 즉 (단순한) 서면 증거가 아니라, 모든 consignatio²⁾를 시작부터 전제로 한다. 위탁은 단일한 체계를, 모든 요소가 이상적인 구성의 통일성이나 동시성으로 설명되는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카이브에서는 절대적인 분리, 이질성 또는 비밀이 절대적으로 분리되거나 나뉘는(secernere) 일이 없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아카이브의 아르콘적 원리를 ‘위탁의 원리, 즉 모으는 원리’라고 한다 (Derrida, 3)

2) Consignatio는 누군가 또는 어딘가에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맡기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 용어는 주로 법률이나 비즈니스 설정과 같은 공식적인 맥락에서 자주 사용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에서 위탁의 의미는 모든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이루도록 하며,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이상적인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르콘적 위탁권력은 통합되고 단일한 체계로서 아카이브가 기능할 수 있도록 내적인 구성 요소들, 기호들을, 체계적이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아카이브에 모이는 기호들은 이질적이지 않고 상호 차별화되지 않는, 동일한 체계를 안에서 보존되는 시스템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데리다는 위탁을 통해 아카이브의 수많은 기호는 하나의 단일한 신체를 가진 체계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브에 무엇을 모은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위탁의 의미라고 표현했다.

『아카이브 열병』에서 데리다의 아르콘적 권위는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가진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유사하다. 데리다는 ‘아르콘적 원리는 가부장적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권위가 있는 시민공동체(brothers)에 의한 기록의 장악을 의미한다’고 말한다(Derrida, 95) 프로이트 이론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억압되거나 억눌린 무의식적 권위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카이브에서 무언의 아르콘적 권력이 실질적으로 기억에 행사하는 폭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아카이브 내 기록은 기호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르콘들은 아카이브 내의 기호들을 모으고, 조정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혹은 그 의미를 소멸시키는 통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통제하는 아르콘들은 아카이브의 기호에 고정된 맥락을 제공하고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고정하며, 해석하고, 묶는다.

이렇게, 이 (아르케이온이라는) 거주지에서, 이 가택 연금 속에서, 아카이브는 자리 잡는다. (기록이 혹은 기호가) 영구히 거주하는 이 장소는 사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로 제도적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항상 비밀로부터 비밀로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로, 프로이트의 마지막 집이 박물관이

되는 것 처럼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의 변화와 같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서들은 항상 담론적 글이 아닌 것들로, 특권적 위치에 따라 아카이브의 이름으로 보관되고 분류된다. 그들은 이 비범한 장소, 법과 개성이 특권으로 교차하는 이 장소에 존재한다(Derrida, 3)

아카이브의 기록들은, 데리다의 기호들은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기표와 기의 사이를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끊임없는 반복과 차이를 통해 그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의미들로 연기된다. 즉, 하나의 기호는 다른 기호들과 구별됨으로서 의미를 얻기 때문에, 아카이브는 기호가 모여있는 장소로 본질적으로 항상 새로운 해석에 열려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본래 데리다에게 아카이브는 전혀 단일하고 닫힌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아카이브는 본질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단절적이며, 때때로 독단적이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불연속적인 기호들이 끊임없는 차이 속에서 의미를 생성해 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데리다에게 아카이브의 문서들은 담론적 글일 수도 있지만 담론을 벗어난 맥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데, 이는 데리다가 아카이브의 문서들을 단지 현재 아카이브의 단일한 체계에서 단일하게 논의되고 해석되는 담론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카이브가 사회와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권위에 의해 절대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점은 아카이브 내부에는 그 시작부터 양립불가능한 모순이 하나의 연속선 상에서 존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기호와 그 의미들을 하나의 체계로 분류한다. 알다시피, 기록관리는 아카이브 전체 체계와 차별되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기록들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 질적인 기록들은 아카이브 선별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절한 분류체계나 관리 도구를 찾지 못한 기록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카이브에서는 구조적으로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한 분류체계를 조직하고 운영

한다. 정밀한 아카이빙의 절차들은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분리된 기호들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탁권력은 아카이브 문서들이 특정 담론 내에서만 존재하도록 하게 해왔을 뿐 아니라 아카이브라는 특권적 위치에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그 자체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해 왔다.

나아가 데리다에 따르면, 전통적 기록학은, 이러한 아카이브 제도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들을 제공하면서 아카이브에서 작동하는 규율과 법, 그리고 이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즉, 기록관리는 지적, 물리적 통제권을 소유한 위탁권력의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권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데리다는 『아카이브 열병』에서 “이제껏 서양에서 전통적인 아카이브학은 아르콘적 권력이 아카이브에 관한 권한과 명령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며 질서를 부여해왔다”고 직접적으로 기술한다.

“기록학(The science of archives)은 이러한 제도화 이론, 즉 거기에서 시작되는 법과 이를 정당화하는 권리에 관한 이론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 이 권리는 (일관된) 역사를 부여하거나 혹은 해체가능한 역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최소한 정신분석학은 이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Derrida, 4)”

데리다는 기록학이 향후 이러한 아카이브의 제도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해야 하며 이에겐 아카이브를 지배하는 법과 권리가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탐색을 통해 아카이브의 해체 가능성 또한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리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기록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캐롤린 스태드만(Carolyn Steedman) 역시 기록학이 스스로 엄격한 기록물 선별 기준과 분류, 기술 규칙, 메타데이터 작성과 보존 전략의 구축 등의 아카이빙 절차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말 아카이브 내의 기록물도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고 지적했다(Steedman, 2001). 아카이브에서 국민 국가의 탄생과 국사(national history)의 강조는 마치 아카이브에 본질적으로 국민국가를 향한 하나의 스토리텔링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만이 존재하며, 아카이브에 존재할 수도 있었던 여러 일상을 담은 사람들의 기억들에서 무시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순수하게 역사학 연구를 위한, 혹은 인류 역사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래된 자료실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해체한다. 그리고 아카이브가 담론의 공간이자 권력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호와 기록, 권력과 기록학 등의 도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기록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록학이 기록의 보관이라는 외형적 기능을 넘어서, 아카이브에 내재적 속성과 이러한 속성들이 어떻게 위탁의 권위 아래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해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제도적 기능과 이론적 토대 모두에 의문을 드러냈다.

3. 아카이브에 내재한 근원적 충동, 죽음충동

아카이브 내부에서는 기록을 보존하려는 욕구와 소멸하려는 두 가지 모순된 현상이 기억과 망각이라는 충동의 긴장으로 이어진다. 아카이브는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과 저장의 장소로 흔히 이해되고 있지만, 데리다는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을 바탕으로 아카이브에 내재된 또 하나의 작용, 망각과 파괴 충동이 있음을 드러낸다. 데리다가 언급하는 죽음충동(Todestrieb)은 프로이트 후반기 저술 중 가장 핵심적 이론을 담고 있는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1920)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생명체는 탄생과 더불어 죽음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죽음충동은 생명체가 본래의 무생

물 상태, 즉 비탄력적인 죽음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의미한다.³⁾ 이러한 죽음충동의 중요한 특징은 파괴 충동인데, 죽음충동이 내부로 향할 때 자기 파괴적이며, 외부로 향할 때는 외부 세계의 파괴 충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충동은 삶의 본능(Eros)과 대조되며,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고 반복 강박의 형태를 띤다. 그럼에도 엄격히 말해, 파괴 충동과 죽음충동은 동일하지 않는데, 죽음충동은 그 자체로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외향적으로 표현될 때 파괴 충동으로 드러난다. 즉 죽음충동이 내재적인 충동이라면 이러한 충동이 외재화될 때 파괴 충동(Destruktionstrieb), 혹은 공격 충동(Aggressionstrieb)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괴 충동은 유기체 외부로 방출되는 죽음충동의 일부로 규정될 수 있으며 자기 파괴적 행동이 외부 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자신의 공격적 에너지를 외부 대상으로 발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죽음충동은 그 자체로 드러나거나 논증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추적 가능한 충동이 아니다. 조선령이 그의 논문에서 설명하듯,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은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심리 속에서, 어떠한 물질적 조건 속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죽음충동의 유일한 형식은 사색과 말소의 움직임 뿐이다(조선령, 2016). 다시 말해 죽음충동은 단지 파괴 충동으로 보여질 뿐인데, 이는 아카이브 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와 죽음충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죽음충동은... 항상 작동하지만 침묵 속에서 작동하며, 스스로의 아

3) 프로이트는 “죽음충동을 억압된 무의식을 통해 생겨나는 반복 강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 강박은 쾌락을 찾으려는 것보다 더 무의식에 가깝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생명의 평온한 상태를 지향하는 본능, 곧 유기체가 그 이전의 상태인 무생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곧 죽음충동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 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죽음충동의 개념을 임상적으로 논증하기는 어려운데, 개념을 그 자체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논증력은 취약하다. 다만 죽음충동의 개념은 반복 강박과 파괴 충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조영환, 2005).

카이브를 남기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아카이브를 파괴한다.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고유한 움직임의 동기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아카이브를 파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자신의 고유한 흔적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외부로 생성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삼켜버린다... 그래서 죽음충동은 사실 아카이브 파괴자로 불릴 수 있다. 그것은 항상 사명을 가지고 조용히 아카이브를 파괴해 왔다(Derrida, 14)

프로이트는 그의 책 『죽음충동: 임상인간학노트』에서, 죽음충동은 반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가 다할 때까지 반복하는 원초적 충동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욕구는 삶의 충동과는 반대편으로 작용한다. 강우성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에 대해 ‘죽음충동은 억눌려 있던 충동의 흔적이 지워져 훼손된 채 돌아와 심리 현실의 항상성을 교란하는 돌발적 분출’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성, 2021).

데리다는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이며, 궁극적으로 숭고하다고 여겼던 아카이브의 한가운데에 이러한 파괴적 죽음 충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는 아카이브의 가장 핵심에서 가장 반아카이브적인 속성들이 무언(無言)의 움직임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조선령, 2016), 이러한 죽음충동은 기록물의 폐기, 소멸, 파기, 훼손 등 일련의 아카이브 행위에서 드러난다. 기록의 폐기는 기록의 평가를 통해 가치있는 기호의 영속적 보관이라는 행위와 동시에 행해진다. 이러한 아카이브와 반아카이브적 관행과 충동은, 마치 삶에 대한 갈망의 에로스적 충동과 죽음충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즉, 죽음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고, 에로스적 삶의 충동은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의 근원은 살아있는 경험, 기억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죽음충동이라고 지적한다. 아카이브에서 소멸된 기록은 무엇인가, 아카이브에서 모아지지 않는 기록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아카이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위 중 폐기와 보존 중 어

면 것이 더 일상적인가라고 반문한다.

죽음충동은 공격과 파괴의 충동으로 표현되며, 아카이브에서 망각, 기억상실, 기억의 소멸을 촉진하는데, 이것은 기억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말소, 아카이브와 기록, 문서 중심의 그리고 기억할 만한 장치들의 말소를 중용하는 힘이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결코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내부 경험으로서 존재하는 기억이나 회상이 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아카이브는 기억이 원초적이고 구조적인 붕괴한 자리에 존재한다(Derrida, 15)

데리다의 아카이브는 그 핵심에 반아카이브적 죽음충동이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에서, 죽음충동은 기억과 보존의 욕구와 함께 아카이브 내에 존재하는 양면적 욕구로 이해된다.⁴⁾ 아카이브에는 기억과 망각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이에는 기억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폐기, 소멸과 같은 파괴 하고자 하는 충동, 즉 프로이트의 죽음충동과 같은 분열적인 충동이 존재한다. 이는 아카이브에는 기록을 보존하려는 충동, 영원한 기억과 인류의 단일한 기원 탐색에 대한 충동과 동시에 망각과 소멸을 통해 기억을 없애고 소멸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카이브는 시작부터, 본질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데리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의 단일체로서 아카이브에 대한 직접적인 해체를 선언한다. 그리고 오히려 아카이브 내부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기원이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분

4) 강우성은 제프리 베닝턴(Geogfrey Bennington)을 인용하며, “프로이트 없이 데리다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데리다의 해체 이론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즉 데리다는 정신분석을 자신의 해체론이 말하는 “무엇이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모범사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강우성, 2021)

열과 충동, 파괴와 죽음의 욕구가 내재되어온 불연속성의, 혼란과 분열의 장소로 아카이브를 규정했다. 이슬비는 데리다의 이러한 아카이브 내부의 자기 분열적 본질에 대해 『아카이브에 내재한 원-폭력의 힘』이라고 지적하고 ‘아카이브의 죽음충동은 아카이브 자체가 지닌 소멸의 에너지이자 아키비스트가 품고 있는 열병의 징후’라고 말했다(2023). 아카이브는 설립과 동시에 파괴를 지향하며, 기억과 동시에 소멸을 진행시킨다. 즉,

프로이트의 가장 인상적인 말에 따르면, 죽음충동은 공격과 파괴의 충동이다. 이는 단순히 망각이나 기억 상실, 기억의 소멸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기억을 넘어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즉, 아카이브, 기록, 문서적 또는 기념비적 장치의 소멸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아카이브가 안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발적이고 살아 있는 내부 경험으로서의 기억이나 회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카이브는 기억의 원초적이고 구조적인 파괴의 장소이다(Derrida, 14).

프로이트의 죽음충동이 지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 강박이다. 반복 강박은 트라우마나 억압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심지어 개인이 고통스러운 경험도 반복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힘에서도 나타난다.⁵⁾ 이러한 반복 강박적 죽음충동의 욕구는 아카이브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아카이브 안에 내재된 죽음충동은 아카이브를 기록을 보존하려는 충동과 동시에 망각과 소멸을 향한 충동 사이의 반복적인 긴장 속에 위치시킨다. 즉, 삶의 충동과 죽음충동의 불안정하고 반복적인 저항 속에 아카이브는 존재

5) 프로이트가 반복 강박의 개념이 파괴 충동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밝힌 것은, 전쟁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군인들이 즐거움이 아닌 고통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장면이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삶충동(life drive)이라고 정의 내린 충동과는 대치되는 현상으로 파괴와 고통의 반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이다.

한다. 아카이브는 영원히 완전한 형태로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시간적 흐름에 저항하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죽음충동의 반복 속에 망각하고 기억은 소멸된다. 반복 강박은 죽음충동과 삶의 충동성에 내재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 개념은 데리다의 아카이브에서 아카이브가 망각하고자 하는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솟아 오르고 이를 억압하며 다시 재구성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죽음충동은 자아가 저항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욕구로 자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무인중에 이러한 충동에 지배당한다고 말했는데, 인간은 죽음충동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성이 무너지며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강박적으로 삶에서 반복된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반복과 파괴성을 인간이 추가하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유아적 충동의 논리로 환원시켜, 삶의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인간 충동의 본성으로 이해했다(강우성, 2021).

이러한 반복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고 동일한, 즉 아카이브가 선별 정책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기존의 주제나 유형, 패턴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리다의 해체철학 내에서 반복이란, 과거의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기존의 것을 창발적으로 반복하면서, 기존의 것에 내용과 형식 모두에 개입하여 기존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타자를 창출하는 개념이다(김보현, 2019). 따라서 아카이브에서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이 지속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무수히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종류의 반복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창발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사이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거나 기존의 것과는 소소한 차별을 담지하고 있는, 그리하여 종종 기존의 것과 절대적 차이를 드러내는 타자를 만들어내는 내부적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발적 반복강박을 통해 아카이브 내의 이질적인 기호들은 반복적으로 소멸되고, 취소되고, 파괴된다. 다시 말해, 죽음충동으로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기억을 망각하며 기록들을 폐기하고 소멸시키는데, 이러한 행위

는 일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아카이브에서 하나의 기억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억들은 억압되고 소멸되며 망각되는데 어떠한 기억들은 이러한 반복 강박의 원리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재구성 작업은 이러한 죽음충동과 삶의 충동성에 내재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억압된 기억들은 반복적으로 소거되지만 끊임없이 위탁권력의 통제를 뚫고 솟아오른다. 기존의 구조와 형식, 체제를 뚫는 내적인 에너지가 발현되며 이는 기존의 아카이브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병적인 혼돈 속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고정된 의미나 질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재구성되는 불안정한 공간임을 밝힌다. 반복 강박을 통해 억압된 의미는 지속해서 소환되고 재생산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보존과 파괴, 기억과 망각 사이의 양가성 안에서 존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소멸시키며, 다시 재생산하며 변형시킨다고 말한다. 아키비스트는 강박적으로 반복하며 기록을 모은다. 아키비스트가 특정 기록들을 수집할 때, 수집과 동시에 특정 기록물은 수집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또, 반복적으로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폐기된다. 특정 기억을 지키기 위해 죽음충동의 반복 강박은 아카이빙 행위속에서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향해 데리다는, 아카이브는 기억의 원초적인 지점인 동시에 구조적 파괴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반복 자체, 반복의 논리, 그리고 반복 강박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죽음충동과 불가분하게 연결되며 파괴와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카이브화를 허용하고 조건화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파괴에 노출된다. 진정으로, 파괴를 통해 망각에 도달하고 아카이브 파괴적 속성을 통해 기념비의 중심, 즉 “기억”에 도달한다. 아카이브는 항상, 선천적으로, 스스로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Derrida, 14).

데리다는 죽음충동을 통해 인간이 본래의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적 욕구를 설명한다. 이는 기표의 집합으로서 아카이브 역시 이러한 생성과 소멸을 무한히 반복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아카이브에서는 기표와 기의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소멸을 향한 충동을 내포하고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아카이브에서 생성과 소멸은 수집과 선별, 평가, 분류와 조직, 보존과 활용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특정 맥락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의미의 연속성과 일반화를 통한 도구들을 통해 아카이브 내의 의미들이 통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리다에게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일 뿐이다. 의미는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캐롤린 스테드만(Carolyn Steedman)이 그의 책에서 재차 언급하듯, 아카이브에서 기록들은 분류되고 색인화된다. 일정한 맥락에 따라 기술되고,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들은 종종 일목요연한 방법으로 전시된다. 즉, 의도적인 결정의 과정에 의해 아카이브가 가진 주관성이 발현된다고보다는 무의식적이고, 데리다에 의하면, 상충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욕구 안에 아카이브는 존재하게 된다.

억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망각의 가능성이 없다면, 아카이브를 향한 욕망도 존재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단순한 유한성을 넘어서는 죽음충동이나 공격, 파괴의 충동이 없다면 ‘아카이브 열병’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협은 끝이 없으며, 유한성의 논리와 단순한 한계, 초월적 미학을 무시하고 압도한다. 오히려 이를 남용한다. 이러한 남용은 문제의 윤리적-정치적 차원과 연결된다. 특정 대상에 대한 하나의 아카이브 문제, 하나의 한계, 또는 하나의 기억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카이브 열병’은 무한성과 함께 근본적인 악으로 나아간다 (Derrida, 19).

이러한 방식으로 데리다에게 있어 아카이브의 본질은 기억과 기원, 근원과 사명인 동시에 반복 강박이자, 분열이고, 파괴적 충동이 된다. 자기 모순적 충동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아카이브에서 텍스트는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기록은 반복적으로 의미를 생산해내고, 재해석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끊임없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 소멸과 생성은, 마치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과 같이 지속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아카이브에서 단 하나의 기억은 존재할 수 없으며 기억은 무한히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에 대한 데리다적 해석은, 그가 그의 해체론이 이미 존재하는 서사와 담론이 은폐하고 있는 이원론적 위계를 드러내는 작업이자, 동시에 아카이브 내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불안정한 지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열병』 역시 전통적 아카이브가 가지는 절대적 가치에 근본적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전체 철학을 관통하는 해체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4. 아카이브 열병: 죽음충동과 아카이브, 그리고 위탁권력

데리다가 그의 책 제목 『아카이브 열병』에서 언급한 '아카이브에서의 열병의 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카이브에서 작용하는 위탁권력의 존재와 죽음충동은 이러한 열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아카이브 기호의 불안정성과 위탁권력의 통제 간의 갈등,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강박적 욕구와 이를 소멸시키려는 죽음충동 간의 긴장은 아카이브에서 열병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데리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아카이브에 수집, 보존하려는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갈망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려는 행위를 넘어 사물의 기원을 찾고 과거와 끊임 없이 연결되려는 무의식적 성향으로 표출되는데, 이러한 욕구의 근저에 망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데리다는 ‘반복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데(Derrida, 53), 이는 아카이브 핵심에서 작용하는 반복적인 오이디푸스적 폭력, 즉 죽음충동은 아르콘적 권위의 억압으로 제도화되며 아카이브에 대한 법적 권리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아카이브에서 절대적인 악(惡)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파괴적 충동은 기록에 대한 무의식적 열망에 대한 좌절과 도태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아카이브 열병을 만들어 낸다. 즉, 아카이브 내의 억압된 충동과 표출된 욕망은 아카이브의 원초적 긴장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전에 언급한, 내부 모순을 고려한 ‘아카이브 열병’이라고 할 수 있다. 억압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망각의 가능성, 즉 근본적인 유한성이 없다면 아카이브에 대한 욕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한성이라는 단순한 한계를 넘어, 죽음충동, 공격충동, 파괴 충동의 위협 없이는 아카이브 열병이 없다는 점이다. 이 위협은 무한하며, 유한성과 단순한 사실적 한계를 휩쓸어 버리고, 보존의 시공간적 조건을 무너뜨린다(Derrida, 19)

아카이브가 지닌 본질적인 모순과 갈등, 즉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기억을 보존하려는 욕망과 망각에 대한 두려움, 특히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기억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카이브 열병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망각과 기억, 보존과 폐기 간극을 아카이브 내부적 모순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아카이브 열병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원을 추구하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간의 강박적 집착은 죽음충동으로 인해 오히려 특정 기억의 고정화 과정에 기여한다. 데리다는 『아카이브 열병』에서 죽음충동과 기억의 고정화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데 즉, 아카이브가 하나의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 그 자체로 다른 기억을 고정시키고 억압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충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억이 아카이브 내에 고정되고 불변한 상태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한다. 아카이브의 기억을 보존하려는 강박적 열망은 불안과 초조의 상태로, 죽음충동에 의해 기억의 고정성과 변화의 상태로 귀결되는 역설을 지닌다. 기억이 아카이브화되는 그 순간, 그 다양성과 역동성의 가치를 잃고 아카이브는 열병의 상태에 빠진다. 그리하여 데리다는 죽음충동이 없다면 아카이브 열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Derrida, 19).

또 하나, 죽음충동과 더불어 데리다의 아카이브 내부에 열병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힘은 외부로부터 비롯된다. 아카이브에 기록을 모으고 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위탁권력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아카이브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는 위탁권력에 의해 특정 기억의 관리와 통제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아카이브에 무한히 기억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강박적 욕구와 특정 기억을 통제하고 재구성하려는 권력의 작용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은 본래의 역동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당하며 아카이브를 열병과 같은 상태로 빠뜨린다.

이러한 기억의 유일성과 기원의 환상을 상실하게 하는 아카이브화의 과정, 기억을 통제하려는 위탁권력의 작용은, 아카이브 어원이라고 언급한 아르케의 모순적 용례에서 이미 발견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케는 근원과 시초라는 뜻과 동시에 인위적 질서와 사명이라는 뜻이 공존한다. 즉, 인간은 아르케를 통해 세상의 기원과 근원을 탐구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국, 인위적 질서와 권위, 명령이 법에 따른 원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데리다가 아카이브 열병이라고 지적한 그 지점에 존재하는 것은 기억의 본질과 상반되는 기억의 질서이며, 기호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점에서 고정성과 안정성이 존재한다. 물리적 장소의 사용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아카이브의 통제권을 건네받은 위탁권력은 아카이브의 기억을 통제할 권한을 지니고, 어떤 기억을 억압할지 어떤 기억을 보존할지 결정한다. 위탁권력에 의해 기억은 억압과 파괴, 선택과 배제의 과정에 놓여지며,

이는 아카이브에서 특정 기억이 선택적으로 보존되거나 혹은 억압되거나 소멸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억압된 기억은 단순히 억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억의 표면을 뚫고 올라오며 아카이브의 내적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위탁권력과 죽음충동이 작용함에 따라 기억은 아카이브에서 의미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고정된다. 특정 기억을 단절된 형태로 고정시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시도들, 이러한 반복적이고 불안정한 시도로부터 열병이 발생한다.

데리다는 해체적 관점으로 아카이브가 일관되고 안정적 공간이 아니라 긴장된 충동과 열병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아카이브가 긴장과 불안, 충동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말이 아카이브가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빈 공간, 혹은 혼돈의 카오스적 공간이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텍스트로서 아카이브는 내부적 논리와 힘, 삶과 죽음의 충동에 의해 특정 의미를 형성하지만, 데리다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복잡하고 불연속적이며, 동시에 분열적인 외부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기능한다. 데리다가 텍스트의 외부에 독립적이고 고정된 보편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분열적이고 복합적인 외부의 힘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아카이브는 반복적으로 의미를 생성시키고, 소멸시키게 된다. 데리다는 이러한 아카이브 내부에 작동하는 외부적 힘들에 대해 인지하며 ‘외부없는 아카이브는 없다(no archives without outside)’라고 말한다.

삶의 충동과 죽음충동은 반복적으로 기호의 의미에 관여하지만, 동시에 외부적 요소들, 즉 아카이브가 위치한 물리적 장소들과 재현 기술의 변화, 기록관리적 도구의 등장과 발전,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과 사건의 해석, 문화적 변동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 등 요인들 역시 아카이브에 끊임없이 관여한다. 이러한 아카이브 내부와 외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로서 아카이브는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해 내는데, 이러한 의미는 그 사용과 시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동일성을 드러낸다.

아카이브는 위탁의 장소 없이,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외부적 요소 없는 아카이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외부 없는 아카이브는 없다 (Derrida, 14)

즉, 아카이브는 죽음충동으로 인해 기억의 소멸과 생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시 외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위탁권력과 함께 사회정치적 맥락, 테크놀로지의 힘, 그리고 시대적 조건 등의 외부는 아카이브가 선택해야 할 것과 배제할 것을 결정하며 내부의 역동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적인 긴장을 만들어낸다.

5. 나가며

데리다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공간이었던 아카이브를 어디서 튀어 오를지 모를 낯선 기억과 기록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데리다의 책 『아카이브 열병』은 ‘프로이트적 인상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데리다는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과 사회의 권위가 어떻게 인간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과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설명한 방식을 통해, 프로이트와 유사한 논증 방식으로 아카이브가 어떻게 기억을 억압하는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데리다는 아카이브의 내적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서 분석한 기억과 무의식 간의 관계, 억압과 감시, 트라우마와 반복, 해체와 정신분석, 죽음 본능 등의 개념을 아카이브의 작동에 대입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함에도 충분히 설득적이다. 이러한 논증방식을 통해 단일한 의미 체계로서 인식되었던 아카이브 내의 역동 속에 기억과 망각, 인간의 의식과 무의

식, 트라우마와 죽음충동을 보여줌으로서 아카이브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전복하고 해체했다. 『아카이브 열병』에서는 아카이브의 핵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열적 충동을 드러냄으로써 아카이브와 그 기록들 속에 숨겨진 관계를 드러내고 다시 해체하는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카이브 열병을 통해 데리다는 아카이브가 단일하고 일관적 의미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카이브 내부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기호의 역동을 외면하거나 혹은 억압하고, 절대적인 권력 담론의 신성한 기원으로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했던 역사상 수많은 아르콘(archon)들의 전략임을 주장했다. 또한 데리다에 따르면, 아카이브라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기호들의 복잡한 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형성된 담론의 규칙에 모든 다의적 개체들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열병과도 같은 병적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강우성, 2021. 저항의 리듬: 데리다와 정신분석, 현상학과 현대철학 88, 117-154.
김보현, 2019. 데리다와 문학, 서울: 문예출판사.
이슬비, 2023. 아카이브에 내재한 원-폭력의 힘: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70(0), 34-51.
조사라, 2022. 역사의 기억과 기록 장치로서 아카이브 미술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3(2), 581-592.
조영환, 2005. 돈 들뢰로의 『지하세계』와 프로이트의 죽음충동,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Derrida, Jacques, 1995.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trans by Eric Prenowitz, *Diacritics*, Vol. 25, No. 2, 9-63.
Steedman, Carolyn, 2002. *Dust: The Archives and Cultural History*(Encounters: Cultural Histories), Rutgers University Press; First Edition.